

■ 1부 오전 9시  
■ 2부 오전 11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4:24)

인도: 심창보 목사

\*송 영 / 찬 양 대

\*영 광 송 / 1장

\*성서교독 / 34. 시편 81편

우리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매,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렛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네게 응답하며, 므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신앙고백 / 사도신경

찬 송 / 275장

대표기도 / (1부) 전갑영 집사 (2부) 김승규 장로

헌금봉헌 / 51장 (1절)

성경봉독 / **고린도전서 5:1~5**

찬 양 / (2부) 시온찬양대

말 씬 / **“고린도교회의 죄”** / 심창보 목사  
( The sins of the Corinthian church )

찬 송 / 277장

교회소식 / 인도자

\*파송노래 / 620장 (1절)

\*축 도 / 심창보 목사

\*표시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 오후 3시 30분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이다.” (시100:2)

인도: 정인종 목사

찬 송 / 288장, 425장 기 도 / 김영덕B 집사

성경봉독 / **마태복음 5:13~26** 찬 양 / 호산나 찬양대

말 씬 / **“제자의 삶의 원칙①”** / 정인종 목사

■ 저녁 7시 30분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합2:20)

인도: 정인종 목사

찬 송 / 218장, 540장 성경봉독 / **마태복음 5:27~48**

말 씬 / **“제자의 삶의 원칙②”** / 정인종 목사

■ 주일~금 새벽 5시

■ 저녁 8시 40분

사무엘상 강해 / 심창보 목사, 정인종 목사

인도 / 심창보 목사

### 다음 주간 기도

주일 1부	주일 2부	주일 오후
김춘자 권사	윤성태 장로	연윤희 권사

### 예배 위원

8월	1부	2부
안내	김춘자	최영종 김정순 최인숙
헌금	전갑영	최승태 김영덕B 유경순 이영희

### 헌금자 명단

( 온라인 헌금 농협 301-0134-5884-21 강서제일교회 )

십일조	강정원(김신영) 김명순 김정순 김춘예 노상현(이정숙) 윤진태(이기숙) 이창호 장송자 정규식(이석란) 정인종 채형국(박광연) 최인숙 최환철(이동순)
감사헌금	김영덕A(이영희) 김영화 노상현(이정숙) 엄상희 유진원(유예원) 윤진태(이기숙) 윤태오(김현아) 이상혁(송미숙) 이창호 임진수(정해순) 정규식(이석란) 정충호(윤태향) 조항훈(정근영) 채형국(박광연) 최인숙 최환철(이동순) 무명2 * <b>자녀소원</b> : 김성학(류윤영)
교육헌금	김영덕B 김정순 신춘봉(박영미) 이창호 정규식(이석란) 최인숙 최환철(이동순)
구역헌금	유초 중고
선교헌금	김성학(류윤영) 김형문(신승희) 최환철(이동순)
구제헌금	최환철(이동순)

주일 오전예배 설교요약

## “고린도교회의 죄” (고전5:1~5)

고린도시는 세계적인 항국 도시에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가 발달한 도시입니다. 고린도시에 있는 고린도교회는 죄악에 노출되고, 그 죄가 교회 안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이를 통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 1. 죄에 대해 통탄히 여겨야 합니다.

2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질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방인 중에도 없는 죄인 계모와 음행하는 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은 바울이 통탄히 여기지 못한 것에 대해 질책을 합니다.

우리는 죄를 통탄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야 죄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 애통할 때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 2.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십니다.

3절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음행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 이미 판단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비록 고린도교회와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고린도에 일어나고 있는 죄에 대해 정죄하고, 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염두해 두고 살아야 합니다. 죄악을 저지르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에, 죄를 멀리하고,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 3. 죄를 경계합니다.

5절에서 바울은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다고 말하며, 고린도교회 안에 근친상간의 죄를 범한 자를 출교시킬 것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유는 6절의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조금의 죄도 틈타지 못하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죄를 범했다면 즉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주님의 공동체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죄의 풍조가 만연한 이 시대에 우리는 죄를 경계하고, 죄에 대해 통탄히 여기는 마음으로 삽시다. 죄에 대해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